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법이나 규율에 얽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법이나 규율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계명은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한 계명들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가고 싶더라도 기차 레일 위를 달릴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알 길이 없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니다. 동시에 그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23:25)"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 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들을 부수고(23:2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한다(23:32)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므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염려하여서 입니다(23:33). 또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아무 능력도 없는 헛된 것으로서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20장 20절 말씀처럼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테스트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3:20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20장 20절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죄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젖어서 그 죄를 즐기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범죄하게 된다 하여도 얼른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23:21말씀에도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도록, 다시 말씀 드리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행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간략하게 3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법들을 연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그 법들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간에 지켜야 할 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부터 차별이나 거짓 위증, 도덕에 관한 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한 법까지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이런 생활 법이나 규범까지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27 말씀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골 3:12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그 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5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7)

셋째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10)

넷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11).

다섯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21-22)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1-6)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이 너무 많아 버겁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요일 4:10).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분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그 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도 그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그 사랑을 아낌없이 다 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